

LG-한화, 기능성 바닥재 경쟁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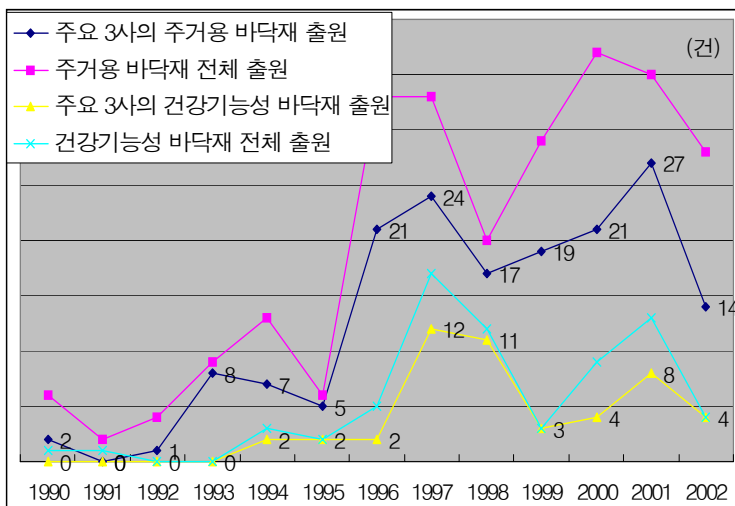
주거용 시장 건강기능성 제품이 평정 ... KCC도 기술개발 가속도 붙어

건설회사 간의 분양 경쟁으로 아파트, 주택 등에 고급 건축자재 사용이 확대되고, 가정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기능을 갖춘 건강기능성 바닥재가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성 바닥재란 다층으로 이루어진 바닥재의 한 층에 황토, 천연옥, 은, 맥반석, 참숯, 대나무 숯, 천연향, 방충제 등을 첨가하거나, 재질 및 구조설계를 개선한 바닥재로 원적외선 방출, 항균,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 향기 효과, 인체충격 최소화 및 소음 흡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주거용 바닥재 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단순한 형태의 비닐 장판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입체 효과, 천연원목이나 천연석의 무늬 및 질감을 나타내는 바닥재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심미적인 효과에 건강기능성까지 부여한 바닥재가 속속 등장했다.

국내 바닥재 관련 특허출원 동향



국내 주거용 바닥재 관련 특허는 1990년 이후 총 255건이 출원됐으며, 1996년부터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출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 3사의 출원비중이 85%에 달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미미한 데 그쳤다.

특히, 건강기능성 바닥재는 1990년 이후 총 70건이 출원됐으며, 1997년부터 출원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데 주거용 바닥재 동향과 마찬가지로 법인출원 중 주요 3사의 출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거용 바닥재 시장규모는 연간 40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건강기능성 바닥재이며, 앞으로는 업무용 바닥재

분야에도 건강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인체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피로를 경감시키는 등 새로운 건강기능을 부여한 바닥재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나 실내환경을 고려한 소음 흡수기능 바닥재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바닥재 등이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국내 건강기능성 바닥재 개발동향

구 분	제 품 명	첨가성분	효 과
LG화학	갈고미 황토방, 갈고미 우드룸, LG 조은세상	천연 황토, 참숯, 은	원적외선(천연황토, 참숯), 습도조절(참숯), 항균(은), 전자파 차폐(은)
금강고려화학	옥장판, 은하수, 참으뜸이, 테마여행	천연옥 분말, 은, 맥반석, 특수세라믹	원적외선(천연옥분말, 맥반석), 항균(은), 전자파 차폐(특수세라믹)
한화종합화학	참숯나라파트너, 오죽헌프라임, 황토펙트	참숯, 대나무 숯, 황토, 옥	원적외선(황토, 옥, 참숯 대나무숯), 습도조절(참숯, 대나무숯)

<Chemical Journal 2003/07/03>